


공동체 소식



부활 제4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 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 **감영진 라파엘, 감춘희 라파엘라 가정**
- + **차호섭 요셉, 차선운 마리아 가정**

■ 오늘은 '부활 제4주일'입니다.

본당 평협회 정기회의

- 일시: 오늘 4.17 미사 후.

총구역회 모임

- 일시: 다음 주일(4.24) 미사 후.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4.23(토) 저녁7:30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10:00,
- 장소 : 본당회관 나자렛관.

병원방문 시 통역 도움 받으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통역지원자: 조지연 마리아 (913-948-2925)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다.

-부활 감사송4 <파스카 신비로 새로워진 세상> 중-

전례 성가

| 시 작 | 예 목 | 성 체 | 파 견 |
|-----|-----|-----|-----|
| 55 | 216 | 170 | 136 |

주일미사 복사

| | 시종 복사 | 향 복사 |
|-------------|-----------|----------|
| 이번주일 | 정예찬 미카엘 | 문호진 안토니오 |
| | 정예진 한나 | 문석찬 요셉 |
| 다음주일 | 고평원 프란치스코 | 문호진 안토니오 |
| | 이원준 요한 | 정예찬 미카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
|-----------|----------|----------------------|
| | | 제2독서 |
| 금주 | 박혜정 카타리나 |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
| 차주 | 최은미 아네스 |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

애찬 봉사자

| | |
|-----------|---------------|
| 금주 | 박정자, 김경돌, 이은미 |
| 차주 |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

헌금 봉사자

| | |
|-----------|--------------------|
| 금주 |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
| 차주 |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영성체 | 헌금 | 교무금 |
|---------|-----|------|------|
| 4/10 | 77명 | 406불 | 500불 |
| (총 2세대) | | |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4주일입니다. 교회는 부활 제4주일을 성소 주일로 정하여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성소 주일은 특별히 사제와 수도자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불러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성화해설



착한목자 그리스도 (물리오, 1660,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박물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요한 10,27-28.30)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양들은 언제나 목자 곁에 모이고,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으며, 목자를 따릅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14.43-52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 화 답 송 :
-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 2 독 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7,9.14-17
<어린양이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7-30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쉐 마

양떼와 착한 목자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면 베두인족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양떼를 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물도 찾기 힘든 광야에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물이 광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는 우물이 있는 위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목자가 우물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양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신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우물인 하느님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양떼를 그분께로 이끌어 주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양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그들을 알고 그들이 당신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목자들의 삶의 체험이 잘 녹아 있습니다.

광야의 우물은 그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함께 모여 물을 먹이곤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창세 29,1-14)과 모세가 우물가에서 미디안 사제의 딸들을 만나는 장면(탈출 2,16-22)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함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다 보면, 양떼가 섞여 어느 목자의 양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들에게 표식을 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양떼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이 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인이 부르면 그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떼가 주인의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면 양떼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양떼는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당신을 따라 우물물, 곧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나, 목소리를 알아듣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당신에게서 양떼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양떼를 늑대나 적들의 손아귀에서 항상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버리고도 망치는 나쁜 목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행여 길을 잃은 양이 있다면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 나서서 데려오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양떼 가운데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할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양떼를 아끼는 이유는 당신이 남의 양떼를 맡아 기르는 직업적 목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곧 당신의 소유이신 양떼를 직접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를 당신의 양떼로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목자이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합시다. 아울러 성소주일을 맞아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 진정으로 양떼를 사랑하는 착한 목자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합시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된 무덤 경비병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저 예수라는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라며 따집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7,62-66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요셉은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자신이 소유한 새무덤에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했는데 무슨일이 일어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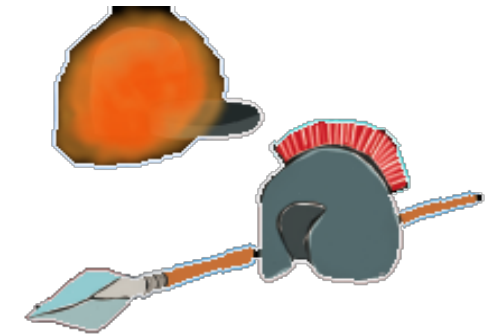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8,1-8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여인에게 나타나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비병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여자들이 떠나

간 뒤에 혼비백산한 경비병 몇 명은 성안으로 들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수석 사제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의논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단단히 일러두며 어떤 부탁을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8,9-15

무덤 경비병들은 돈과 권력의 힘에 눌러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었지만 자신들이 거짓된 증언을 하는 범죄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로마 경비병들의 이야기는 초대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많은 부활 이야기와 함께 공공연하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 생각 이상으로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영원한 선물

너는 영원히 아름답고

너는 영원히 설레고

너는 영원히 사랑받으리라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요한 10,28)

- 임의준 신부